

따스한 햇살같은 주님의 사랑

(중동L국, 000 한00 가정)

■ L국은 지금..

사랑하는 동역자분들 평안하십니까? 온 세상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특정 국가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일한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줄로 압니다. 매일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은 한 없이 나약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 곳 L국도 지난 2월21일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현재 확진자 641명, 치료 80명, 사망 21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3월 말에 전국민 '자가통행금지'를 시행하였고, 현재는 '야간통행금지'(오후7시-오전5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폐쇄 되었고, 학교,교회 등의 모임은 모두 정지상태이며, 식료품과 약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들도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L국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경제 위기가 계속 되어 국가 파산의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까지 불어와 사람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과 현지 교회들도 당분간 사역과 모임을 중단하였고, 주일 예배는 한국과 동일하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4월 12일까지였던 국가 첫다운은 4월 26일까지 연장되었고, 현지에서는 그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중단되었기에 저희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고국에 계신 모든 분들의 어려움도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 모든 상황이 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또 주님의 긍휼하심의 손길을 구하며 모든 분들에게 안전과 평안을 전합니다.

■ 지금은 기도의 때

저희가 거주하는 자흘레 지역은 75만 명의 L국 사람들과 35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건물에만 해도 절반은 L국, 절반은 시리아 사람들일 만큼 지역 인구에 비례해 엄청난 수의 시리아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 고국을 떠나 온 그들 대부분은 이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친 데 댄친 격으로 최근 L국의 경제위기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들의 생활 환경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희 언어공부를 담당해주는 H선생님은 시리아에 있을 때부터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크리스찬입니다. L국에 넘어온 후로도 오전에는 난민학교를 섬기고, 오후에는 아랍어 가르치는 일을 병행함으로 어려운 시기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L국 경제 위기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난민학교가 무기한 휴교에 들어가 일자리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비자 문제로 시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아내의 생활비까지 담당하고 있던 상황이라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직장을 가지고 있는 H선생님의 상황만 보아도 심각한 수준인데 제대로된 별이가 없는 난민촌 사람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열악한 위생 환경과 가난 속에서 그들의 하루하루가 걱정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할 수 있는건 기도 밖에 없는데 답답할 때도 있지만 때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 그리고 난민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손길이 가득 넘치기를 함께 중보해주시길 바랍니다.

■ 따스한 햇살처럼



<자흘레- 산 아래에서>



<자흘레- 산 위에서>

L국의 인구는 600만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크기는 한국의 경기도와 비슷한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한국과 동일하게 4계절을 보유하고 있어 다채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도 베이루트는 해발 고도가 낮고,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여 여름엔 덥고 습하나 겨울엔 매우 따듯합니다. 반대로 저희가 거주하는 자흘레 지역은 해발 고도 900m이며 산으로 둘러 쌓인 분지 형태라 여름엔 시원하나 겨울엔 무척이나 춥습니다. L국은 지중해 연안을 제외한 대부분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지형을 잘 활용하여 아름답게 형성된 마을의 분위기는 단기팀으로 방문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곤 합니다.

이제는 4월 중순... 드디어 이곳에도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오른 뒷산에서 바라보는 자흘레의 모습은 그저 평화롭기만 합니다. 연일 전해지는 안타까운 소식들에 사실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3월 중순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놀려대며 우리와의 만남을 기피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일부러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국의 의료 시스템과 적절한 대응방안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만큼 사람들의 시선도 다시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한국과 L국에 내리쬐는 따스한 봄 햇살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모든 이들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가정 이야기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주신 덕분에 저희 가정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선생은 어 느덧 임신 9개월 차가 되었고, 요즘은 태동도 잘 느껴지는걸 보니 태아 또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고민하던 끝에 L국 의료상황과 산후 조리의 문제로 한국에서 출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선생은 지난 3월 초에 한국으로 들어가 출산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오 선생은 출산 예정일(5월20일)에 맞춰 5월 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4월26일까지 L국 공항이 폐쇄된 상태이고 그 이후의 상황도 내다볼 수 없기에 기도 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오 선생이 한국에 들어가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한다면 최소 4월 말에는 하늘길이 열려야 출산의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 든지 담대하게 이겨내고, 순간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다짐해봅니다. 저희 가정이 떨어져 있는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영적 진보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 1.L국 경제위기의 회복과 코로나19로부터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 2.사회적으로 취약한 L국 빈민층과 시리아 난민들에게 필요에 따른 물품들(의약품,위생보호장비,식량 등)이 채워지기를
- 3.한 선생 임신 중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산 할 수 있도록,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 4.오 선생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언어 공부의 진보를 위하여
- 5.각 가정의 믿지 않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동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중동L국에서 오OO, 한OO 가정 드림

오OO / 카톡ID: tomocap123 , E-mail: tomocap123@hanmail.net

한OO / 카톡ID: hyun00i , E-mail: imbs00@naver.com

바울선교회 063)254.8418, <http://www.bauri.org>